



Bollettino di Animazione Missionaria Salesiana

**모두 함께 DVD를 본적이 있나요?**



**사**랑하는 살레시오 선교사와 살레시오 선교를 도와주는 친구 여러분! 살레시오 가족들 중에서 201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축하와 함께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365 일이라는 은총이

선교문화를 살찌우는 방법들 중의 하나는 선교에 매력을 느끼도록 매일 선교에 대한 앎을 넓혀 가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살레시오 안에는 여러 나라와 토리노의 “돈보스코선교”에서 만든 비디오들이 많이 있는데, 그 것들은 우리 수도회 전체와 살레시오 가족들 중에서 현재 선교사로 살고 있는 선교들의 삶에 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5개 정도의 DVD가 53 개의 사설 방송국에서 방영되고, 130 나라의 4000살레시오 집에 전해집니다. 살레시오 공동체를 방문할 때마다, 호기심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정보와 양성에 귀중한 수단인 이 DVD를 형제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봅니다.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는 몇 년이 지난 DVD의 포장을 아직 열지도 않았습니 다. 그래도 어떤 선교지에서는 토리노에서 오는 이 DVD를 원장이 복사하여 40명에 이르는 모든 선교 지역에 있는 활성자와 교리교사들에게 보여 주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인터넷이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없이 발전기 하나에 의지하여 사는 장소에서도 DVD 재생기를 이용하여 많은 영화와 비디오를 상영하기도 합니다. 매주 수련자들에게 선교에 관한 비디오를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 수련장도 있습니다. <http://www.missionidonbosco.tv>, 에 접속하면 모든 대륙의 수많은 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www.sdb.org](http://www.sdb.org) 에도 창 (Dicastero-Missioni-DVD Missionari)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 5년 동안 ‘돈보스코선교’에서 만들어진 모든 DVD 목록을 확인 할 수 있고, 이는 7개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보물이 손안에 있습니다. 선교 문화를 키우고 확장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문화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형제요 주님이시며, 세상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기초입니다. 금년에 총장님께서 돈 보스코의 살레시오 가족인 우리 모두에게 성소를 위한 문화를 만들자고 초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에는 ‘갈리에로 11’를 통해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동전의 다른 한 면인, 살레시오 선교라는 문화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Vedran Clement*  
바츨라브 클레멘트 신부, SDB  
선교 담당 평의원

**아시아를 위한 선교사를 찾습니다.**

나라 - 관구	필요한 언어	환경과 선교사에게 필요한 자질
중국계획 - 중국관구	중국어, 영어	관구를 도울 젊은 회원 (마카오, 홍콩, 대만) 평수사 회원과 튼튼한 살레시오 성소
파키스탄 - 필리핀 남부	영어, 우르두어	적은 회원, 쉽지 않은 회교 환경, 기술교육, 튼튼한 살레시오 성소, 평수사, 양성자
스리랑카 - 스리랑카	영어, 타밀, 스리랑카어	적은 회원, 2009년에 끝난 긴 전쟁, 국제 공동체의 필요 (남아시아지역 밖의 회원)
아제르바이잔 유리스를 위한 선교 - 슬로바키아	러시아어 혹은 영어, 아제르어	600가톨릭 신자와 3000 이민자, 온건파 회교, 공동체의 국제화, 슬로바키아 사람이 아닌 회원
라오스- 태국	영어, 라오스어	2004년 직업학교 개설, 평신도가 운영, 수도자의 현 존을 위해 평수사, 공산국가, 빈곤한 나라



## 한 어린이의 이야기

**나**는 수련기 때부터 선교사로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거저 받은 사랑을 나도 남에게 주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 사랑은 돈 보스코를 통해 전해진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이것을 생각 할 때마다 나는 행복했었다. 만일 선교사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마을에 살레시오 집도 없었을 것이고, 많은 젊은이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없었을 것이다. 나의 선교 성소는 내가 실습기를 보낸 공동체에서 확고해져 갔다. 나의 사목과 나의 생활은 항상 훌륭한 선교사들과 함께였다. ( Guezou 신부, 프랑스 출신 선교사로서 52년을 선교사로 일했다. 요한 비질리오 신부, 인도 출신으로 아프리카에서 20년 이상 일했다) 이 분들이 내가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내가 선교지인 캄보디아에 큰 열정을 가지고 도착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티포라는 병에 걸리고, 한 주일 내내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 나는 무척이나 실망했지만, 다행히도 일주일 후에 건강이 회복되었다. 그런데 젊은이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때 내가 받은 느낌은, 내가 아무 것도 할 수없는 어린이가 된 심정이었다. 이런 경험이야말로 참으로 실망스러운 경험이었다. 내가 아직 나의 나라에 있을 때는 소통의 중요성과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조금씩 크메르 말을 이해하면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직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더 이상 이 말이 처음 도착했을 때처럼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는다. 이제는 이곳의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나를 자신들의 친구나 형제처럼 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를 이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게 하기 위해 우리 살레시오 공동체가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 주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 공동체는 항상 나의 버팀목이었다.

지금 나는 이곳을 나의 집처럼 느끼며, 학생들에게도 캄보디아가 우리나라라고 이야기 한다. 자주 내가 다른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나는 이곳과 이곳 사람들이 좋고 일이 좋다. 매일의 삶이 나에게서 또 다른 발독코의 체험이다. 내가 캄보디아에 사는 것은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주님을 뵈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내가 흡사 돈 보스코와 함께 발독코에 있는 것 같다.



신학생 찰스 아론 미카엘, 살레시오회원

## 선교의 횃불이 타오르도록 불씨를 살립시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에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통해 준비된 불씨를 집으로 가져가 젊은이들의 마음 안에 선교에 대한 불꽃을 피우도록 합시다. 마귀 들렸던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을 다시하라고 합니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 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Mc 5, 19)

아시아지역 선교회의 (2006) 태국, 치앙마이



## 살레시오 선교 지향

### 남아시아 지역

남아시아 특히 파키스탄에서 일하고 있는 살레시오 회원들이 다른 그리스도교 형제들 사이에 가교의 역할을 하도록 기도 합시다.

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주민 대비 겨우 1-2%밖에 안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교 교회의 형제자매들과의 관계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제일 큰 관심이 비신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그리스도 신자들이 사는 대양주에서, 가장 효율적인 증거는 그리스도 교회 사이에 먼저 친교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